

[지상 일대일강좌] 일대일 양육이 쉬워지는 9가지 전략

백인호 집사 (일대일제자양육 사역팀) / 2002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일대일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양육의 부담감을 떨쳐내고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 해법은 관계설정에서 출발한다. 효과적인 양육과 동반자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친구가 되라

동반자와 먼저 할 일은 정직하게 동반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잠 17 : 17) 동반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동반자와 친구 관계를 맺을 때 무엇보다 양육자가 무조건 용납하며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 도중에 양육자가 핸드폰을 받거나, 지겨워서 힘든 표정을 짓는다면 동반자는 즉시 마음 문을 닫을 것이다.

2.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를 개발하라

동반자와 관계를 형성할 때 처음부터 영적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시간을 영적인 대화와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라는 뜻이다. 양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반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일대일 양육에 열심을 내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반자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으로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동반자와 일주일 동안 큐티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오래 참아라

동반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오랜 시간을 참아야 한다. 동반자와 친밀한 관계가 항상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동반자는 일대일 양육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양육자는 그와 꾸준히 만나야 한다. 다른 동반자들 보다 성장하지 않거나 늘 제자리에 있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된다. 동반자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4. 함께 뜻 있는 시간을 보내라

아무리 시간 내기 어려운 장년층의 동반자라고 해도 그와 함께 시간 보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회사원과는 직장에 찾아가서 함께 점심을 하거나 교회

집회에 같이 참석할 수 있고, 주부와는 함께 슈퍼마켓에 갈 수도 있다. 동반자는 비공식적인 만남에서 마음을 쉽게 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5. 전인격적인 사역을 하라

동반자와 효과적인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동반자의 영적인 필요 외에 다른 필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동반자가 가정 내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큐티를 못하고 있는데, 양육자가 큐티를 하라고 강요만 한다면, 동반자는 좌절할 것이다. 그의 가정 문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6. 마음을 열고 용납하라

양육의 목적은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동반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동반자가 당신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7. 동반자가 당신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동반자가 한 말을 잊어버려 그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동반자는 마음문을 닫아버리게 된다. 동반자가 한 말을 기록해두고, 동반자와 만나기 전에 메모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좋다. 기억력이 나쁜 당신도 동반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8. 친구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라

동반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정을 강조하다 보면 지도자의 역할을 포기할 수 있다. 양육자가 지도자의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동반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 성공적인 양육자가 되니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과 격려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처럼 아름답고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다.

- 백인호 집사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팀)

* 출처 - 온누리신문